

CAGLIERO 11

살레시오 선교 활성화를 위한 회보



톤즈의 돈보스코

사랑하는 살레시오 선교사들과 살레시오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 여러분!

2011년 6월 24일 서울의 한국 살레시오 관구관에서 "톤즈의 돈 보스코, 이태석 신부의 삶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아주 매력적인 선교사가 죽은 지는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이 태석신부는 2001년 6월 24일 사제서품을 받은 직후 수단의 톤즈 공동체로 파견 되었었다. 그는 살레시오 회원이자, 음악가였고 의사였으며 선생님이었다. 그는 돈 보스코의 아들답게 열심히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 13개월의 암 투병 끝에 서울에서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태석 신부는 재능이 많은 살레시오 회원이었다. 대림동 공동체에서 실습을 할 때 운동장에서는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그리고 교실에서는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이용하여 80명이나 되는 위험스러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었다. 80명이나 되는 어려운 아이들을 (그중에는 18세나 되었는데도 아직 한글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 돌본다는 일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매 일요일 저녁 자신이 팝스타일로 작곡한 Tantum Ergo를 라틴어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1997년 실습이 끝난 후 신학 공부를 위해 로마의 살레시오 대학으로 보내집니다. 부제 때 혹시 자신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프리카로 보내주기를 청합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그 곳에서 한 달을 머무는 동안 James Purickal 신부님을 만나게 되어 전쟁 중인 남 수단까지 가게 됩니다. 톤즈 공동체에서 며칠 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공동체 근처에 살던 나환자들을 만남으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사제 서품 후 톤즈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나환자들 사이에서 의사로서 사제로서 그리고 살레시오 회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톤즈 공동체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그리스도교 공동체, 오라또리오 학교 그리고 여러 마을에서 공소를 건설하기 위해 파견 되었습니니다. 사람들은 그를 명랑 신주님이라는 의미로 "쫄리 신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이들과 쉽게 어울리고 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젊은이의 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진료소를 짓고 밴드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의 사후에 "돈 보스코 라디오 FM91"도 개국하게 되고 지금 고등학교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8년을 톤즈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권의 책(아직도 아프리카의 태양은 슬프다. 친구가 되어 줄래요?)을 내기도 하고 한국의 국영 방송인 KBS는 톤즈에서 그의 활동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원 교구 교구장이던 최 덕기 바오로 주교님도 자신의 주치의인 선교사의 삶을 보기 위해 톤즈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선종한 후 1년 사이에 그의 활동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 "울지마 톤즈"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요한 신부님 덕분에 수단의 살레시오회를 돕는 '이태석 신부장학회'에 30,000명의 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의 원장이었고 나중에는 관구장이었습니다. 내가 방문한 아프리카의 첫 나라도 수단이었습니다. 2010년 겨울 서울에서 그가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병자성사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살레시오의 성소를 기쁘게, 낙관적으로, 정확하고도 열심히 살았으며 가족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불림 받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모범은 항상 매력적이며, 남수단의 톤즈 같은 많은 소박한 공동체에서처럼 오늘날 살아있는 돈 보스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선교성소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희망하건데 이 성서의 해에 모든 살레시오 선교사들이 복음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Viclav Clement
선교 평의원,
바츠라브 클레멘트 신부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먼저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쳐야만 했다.

나

는 살레시오 회원들과 함께 자랐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나이지리아에 와서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선교사들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다. 내가 가나의 수련소에 있을 때 처음으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느꼈다. 얼마동안 묵상과 기도를 한 후 수련장에게 선교사 성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직 나이지리아에도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신앙을 나누어 주고 싶어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리 관구가 받은 많은 축복과 성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내가 수단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여러 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후,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는지 궁금해 했다. 여러 번이나 한 밤중에 일어나 울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응답하기 위하여 나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이겨야 했고, 희망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로마에서 있었던 새로운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선교사들의 꿈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나만 이런 종류의 두려움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선교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수단에서 지낸 첫 몇 달은 나에게 희망과 위기의 순간들이었다. 기후는 매우 덥고 건조했다. 아랍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학교나 오라토리오에서 아이들과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었으므로 내가 아무 쓸모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내가 수단에 있어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수도생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슬람 아이들이 나의 부인과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 번이나 물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았기에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의 삶의 양식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형제나 친구처럼 만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느꼈다.

지금 나는 메시나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 가난한 아이들 속에 있었을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나의 살레시오 성소와 우리의 살레시오적인 교육 방법(비록 내가 그들의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이 더 빛을 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살레시오 수도자로서의 삶이 그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남겼기를 희망한다. 나에게 선교 성소를 선물로 주시고 매일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신학생 아킨예미 매튜 올루솔라(Akinyemi Matthew Olusola).
나이지리아 출신 수단 선교사



살레시오 선교 지향

아프리카 - 보건 사목을 위해

직접적으로 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살레시오 가족들을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한 시노드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에이즈는 말라리아 결핵과 함께 아프리카 사람들의 10%가 걸려있는 전염병이고 그들의 사회와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약이나 의학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사실 이는 정의의 문제이고, 총합적인 발전의 문제이다. 그래서 교회는 총체적인 방법으로 응답하려고 한다” (제안 51). 돈 보스코 정신 안에서 착한 사마리아 인처럼 살았던 복자 아르테미데 자티(Artemide Zatti)와 복자 루이지 바리아라(Luigi Variara)여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시고 힘을 주소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원고를 cagliero11@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